

거듭나야 할 대학스포츠

신 광 영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요즘 농구와 배구 등의 프로리그들이 활성화되어서 대낮에도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주부들이 TV 중계를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오빠부대'로 가득찬 체육관의 열기와 코치들의 고함이 어우러져 새로운 겨울 스포츠 문화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대학의 스포츠팀들이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자발적으로 스타디움으로 동원해내는 것이 대학의 유명 선수들이라고 한다. TV-대학 스포츠팀-여학생들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대학스포츠의 상업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실상 대학스포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특정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거액의 금전이 오고가는 일이 적지 않은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부모들이 스포츠를 시키는 것도 대학입학뿐만 아니라 스카우트시 금전이나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연금혜택과 무관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선수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한국을 빛낸 선수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에 보탬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 여하튼 스포츠

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기에 대학스포츠가 크게 기여하였고, 대학들은 재정을 대량 투자하여 스포츠를 대학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외치는 일부 사립대학들에서도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여 대학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대학들이 본연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강조된 엘리트 스포츠의 틀을 벗지 못하는 오늘날 한국의 대학스포츠에 대해서 모두가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낙후된 대학교육, 활성화된 대학스포츠

한국에서 대학스포츠는 권위주의국가에서 발달하는 국가체육의 일부로 발전되었다. 정부가 대학들에게 각종 스포츠팀을 창설할 것을 종용하고 지원하였다. 국가는 과거 동구권 국가들과 같이 올림픽 메달수를 늘리기 위하여 태능선수촌과 같은 집단 스포츠 훈련소를 만들고, 대학들 이에 필요한 선수들을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체계적인 스포츠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조건에서 이러한 것도 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학이 나서서 인기가 없는 기초체육종목 선수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했다.

그러나 대학스포츠는 개인 기록경기 종목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인기 위주의 구기 종목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육상, 수영, 체조와 같은 기초체육 종목에는 관심이 없고, 대중적인 선전에 도움이 되는 농구, 야구, 축구, 배구와 같은 구기 종목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올림픽 이후 TV 중계가 활성화되면서 대학 선전 수단으로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대학선수들이 인기스타로 발돋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런데 좀 더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이러한 현상은 한국 대학들이 안고 있는 극단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교육기관으로는 침체된 대학이지만, 스포츠팀으로서는 활성화된 대학이라는 전도된 대학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대학들이 외국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드웨어로서의 학교시설과 소프트웨어로서의 교육프로그램들이 형편 없이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설 면에서는 도서관과 같은 기초적인 교육시설의 부족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립대학들이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학스포츠팀을 운영하면서 많은 재정을 소모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부족한 대학들에서조차 스포츠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줄이지 않고 있다. 소수의 선수들을 위하여 다수의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서비스조

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없다. 외국 대학들에서 교육기관으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은 생활체육시설들이다. 실내수영장, 테니스코트, 라켓볼장과 같은 대중체육시설은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몰려오고, 학생들은 알아서 졸업한다는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에서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은 일반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학생들이 교육소비자로서 대학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육서비스의 질보다는 대학스포츠팀의 활동에 흥미를 갖고 또한 이를 통하여 대학과의 일체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대학과의 일체감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아직도 대학은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고시나 취직준비를 하는 학생들이고, 일반학생들의 경우 전공에 대해서는 적당히 공부하면 된다는 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질 낮은 교육서비스에 대해서 학생들이 무관심한 것이다.

대학의 본래 역할로 돌아가자

낙후된 한국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되찾아야 한다. 제 몫도 못하고 있는 대학들이 프로 스포츠팀과 함께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에 호뭇해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학팀들의 실력이 프로팀을 능가한다고 하는 것이 대학의 자랑이 될 수 있는가? 기업 선전 수단으로서의 프로팀의 역할과 최고의 지성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달라야 함은 자명하다. 대학이 본래 역할을 뒷전으로 하고, 프로팀들이 행하는 기능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와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대학을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의 발전은 대학이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입비도 모자라는 대학들이 스포츠팀 운영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일부터 삼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장서와 정기간행물을 구비하는 것이 스포츠팀이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처럼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대학스포츠팀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빠부대로 불리는 광적인 여학생들을 창출한 것도 대학스포츠팀이다. 건전한 스포츠에 여학생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오빠부대는 이성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는 방학 동안의 여가를 선용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다.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는 방송국에 여학생들이 몰리는 것과 동일한 사회현상의 하나이다. 자제력을 잃고,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여학생들의 함성이 대학의 지성

을 질식시켜서는 곤란하다.

과감한 전환의 모색

요즈음도 마라톤경기나 축구시합에서 이기면 대통령이 축하전화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제쳐두고 스포츠 시합까지 챙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한국과 같이 정치후진국이면서 스포츠가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된 곳에서는 통치자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통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후진국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스포츠를 통하여 선전비를 들이지 않고 대학선전을 할 수 있고, 학생을 포함한 대학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이러한 대학스포츠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과감히 변화를 꾀해야 한다. 사립대학들이 학생등록금을 대학스포츠팀에 투자하는 대신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대학선수를 위한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일반 학생을 위한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스포츠 시설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대학들이 프로팀이나 실업팀들과 고등학교 선수들을 둘러싼 스카우트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대학이 세속화되고 회화화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으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데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학력이 형편없는 일부 선수들을 입학시켜 스스로 대학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에 몰두해서야 되겠는가?

스포츠는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야 하고, 스포츠는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는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선수들의 메달 획득이나 경기에서의 승리에만 눈이 어두워 엘리트 체육을 조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이 미래사회를 짚어질 젊은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통하여 몸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대학팀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제 황폐화된 대학을 다시 살리고, 대학 스스로가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소모적인 대학스포츠팀 운영을 지양하고, 그 재정을 일반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학스포츠의 획기적인 전환이 오늘날 한국의 사립대학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스포츠팀이 있는 사립대학 교수들이 앞장서야 한다. 대학스포츠가 보여주는 사회적 역기능을 줄이고, 대학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수들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교육과 연구에서 뒤처져있는 한국의 대학들이 왜 프로팀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까지 담당해야 하는가? 대학의 본연은 스포츠에 있지 않고, 교육과 연구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학제도는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보인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화와 대학수의 증가가 두 가지 커다란 환경의 변화이다. 국제화는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대학수의 증가는 대학들

이 학생들을 상대로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과제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비로소 대학의 본분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들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스포츠 분야에서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제 더 이상 일반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정이 스포츠팀으로 들어가는 안 된다. 학생들도 대학스포츠가 제공하는 오락 기능으로 대학의 역할이 전도되었음을 직시하고,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전환기를 맞아 한국의 대학스포츠는 거듭나야 한다. ■

신광영/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학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출판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춘천 리포트』(공저) 등이 있고, 공동 논문으로 "한국의 계급구조", "Temporality and Class Analysis" 외 다수를 발표했다.